

“반려견치매 임상3상 효과 확인”

지엔티파마

‘크리스데살라진’ 임상3상 완료
투약 관련 부작용도 발견 안돼
“사람 치매환자 연구도 계획 중”



지엔티파마가 반려견 치매(인지기능저하 증후군) 치료제로 개발 중인 ‘크리스데살라진’ 임상 3상 시험을 완료했다.

지엔티파마는 반려견 치매(인지기능저하 증후군) 치료제 ‘크리스데살라진’의 임상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임상 3상은 중증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는 48마리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1년에 걸쳐 진행됐다. 크리스데살라진의 임상 3상 연구에는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내과, 대구 동물메디컬 센터, 부산 제2차 동물메디컬센터, 해마루 동물병원, 헬릭스 동물메디컬센터, N동물의료센터, VIP 동물의료센터에서 참여했다.

연구 결과 크리스데살라진 투여군은 일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반려견 인지 기능장애 지수 (CCDR)’와 이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반려견 치매 지수 (CADES)’에서 플라시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약효가 입증됐다. 탁월한 인지 기능개선 약효는 5 mg/kg 또는 10 mg/kg 크리스데살라진을 투여한 반려견에서 투약개시 4주와 8주에 모두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크리스데살라진의 투약과 관련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월드아틀라스에 따르면 2012년 전세계 반려견의 수는 5.25억 마리였고, 현재는 9억 마리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데이비스 연구팀은 11~12세 반

려견의 28%, 15~16세 반려견의 68%에서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최근 수의학과 헬스케어의 발달로 반려견의 수명이 증가하면서 반려견 치매 유병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적절한 반려견 치매 치료가 없어서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크리스데살라진은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치매 치료 신약물질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반려견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 타우 단백질 침착, 뇌신경세포 사멸을 막기 위해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안전한 소염 작용을 동시에 보유하도록 발굴된 다중표적 약물이다. 지엔티파마 연구진은 크리스데살라진이 치매 쥐 모델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뇌신경세포의 사멸을 줄이고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반려견 치매 임상 3상 연구에서 크리스데살라진의 안전성과 인지기능개선 약효 연구결과를 포함해서 지엔티파마는 반려동물 치매 치료제와 제형에 대한 특허협력조약(PCT)에 국제특허출원서를 제출했다.

지엔티파마 대표이사이며 크리스데살라진의 개발자인 광병주 박사는 “중증 치매견에서 투여한지 4주 만에 크리스데살라진의 약효가 확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대한 임상 2상 연구는 2~3년이면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식약처에 크리스데살라진의 알츠하이머 치매 임상연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이종장기이식 제넨바이오 제넥신으로 최대주주 변경

지분율 8.13%... 플랫폼 체계화

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는 최대주주가 제넥신으로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넥신이 보유한 제넨바이오 전환사채(CB)가 13일 전환됨에 따라, 최대주주가 제넥신으로 변경됐다. 이번 전환 청구로 제넥신은 제넨바이오 지분의 8.13%를 보유하게 되며, 현재 보유 중인 전환사채까지 고려할 경우 향후 최대 11.83%까지 확보하게 된다.

제넥신은 면역치료제 및 항체융합단백질 개발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신약 개발 전문기업으로, 제넨바이오가 바이오업계에 진출해 이종장기 개발사업의 기초를 닦는 과정에서 큰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8년 경동제약과 함께 제넨바이오는 바이오업체로 전환하는데 협력한 것을 시작으로,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을 역임한 권위자인 김성주 교수가 제넨바이오 대표로

합류해 이종장기 개발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에도 일조했다. 제넥신은 2018년 케이클라비스마이스터 신기술조합이 200억 원의 제넨바이오 CB를 인수할 당시 약 100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원천기술도 이전했다. 제넥신은 지난 7일 hyFc 관련 기술 2건을 제넨바이오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제넥신은 단일융합 면역억제제인 GX-P1과 차세대 이중융합 면역억제제인 ‘BSF-110’에 대해, 장기이식 분야에서 해당 물질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제넨바이오에 이전했다. 제넥신은 최대주주로 제넨바이오의 이종이식 플랫폼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전세계 면역억제제 시장이 2026년까지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넨바이오는 이번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이식 분야의 미충족 수요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방송 전 인기상품 미리주문 하세요”

롯데홈쇼핑, ‘쇼핑하는 42’ 론칭

롯데홈쇼핑은 모바일을 통한 미리주문이 많은 인기 상품만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특화 프로그램 ‘쇼핑하는 42’를 론칭했다.

생방송을 기다려 구매하기 보다는 필요한 상품을 모바일로 검색, 미리 주문하는 등 홈쇼핑 이용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생방송 전 미리 주문율이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미리 주문이 많은 상품을 분석하고, 시의성, 타깃 고객 등을 고려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신속하게 선보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통상적으로 1시간 동안 1개 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홈쇼핑 방송 형식에서 벗어나 2시간 동안 3개 이상의 상품을 선보이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외에도 한 프로그램당 스튜디오 한 곳에서 방송했던 것과 달리 상

품별로 콘셉트에 맞게 여러 개의 스튜디오를 동시에 활용해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특히, 120분 방송을 분할해 40분씩 연이은 편성으로 보다 많은 파트너사들에게 접점 기회를 제공하고, 60분 편성 방송에 대한 재고부담 등 어려움이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쇼핑하는 42’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120분 간 진행된다. 미리 주문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상품을 각각 40분씩 연이어서 편성한다. 지난 8일(수) 론칭 방송에서는 미세먼지 이슈로 의류 관련 가전들에 대한 검색율, 미리 주문율이 높아 ‘의류 관리기’, ‘건조기’ 등을 편성해 목표 대비 2배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2회 차로 진행되는 이달 15일(수)에는 설날을 앞두고 설 선물, HMR 등에 대한 미리 주문율이 높아 호주 직수입 별집꿀 ‘베링가 허니콤’, 개그우먼 팽현숙씨가 운영하는 ‘팽현숙의 옛날 순대국’ 등을 선보인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대웅제약, AI 활용 항암신약 개발 돌입

美 A2A 파마와 공동연구 맞춘

대웅제약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바이오기업 A2A 파마와 항암 신약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A2A는 인공지능(AI)이 결합된 신약 설계 플랫폼인 ‘SCULPT’를 활용하여 신규 화합물을 설계하고, 대웅제약은 이 구조를 기반으로 물질 합성 및 평가를 수행하여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A2A의 SCULPT는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암을 유발하는 표적의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표적에 적합한 수억개의 독창적인 물질을 설계하여 표적 기

반 화합물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또 그 물질의 결합력 및 약물성을 인공지능 학습으로 예측함으로써 표적에 최적화된 물질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약물 발굴 플랫폼이다. 통상적인 합성 신약 탐색 방법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표적에 대해서도 우수한 물질을 설계할 수 있는 고도의 정밀한 기술력이 반영되어 있으며, 표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기존 인공지능만을 이용하여 신규 화합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표적에도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SCULPT의 우수성은 이미 A2A가 자체 보유한 항암 및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대웅제약은 SCULPT를 통해 최적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왼쪽)과 소티리오스 테지오폴로 A2A 파마 사장이 12일 항암 신약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의 항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함으로써, 항암제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항암 분야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22일 뇌졸중 건강강좌

이대서울병원은 오는 1월 22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지하 2층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환우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뇌졸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뇌졸중을 피할 수 있는 건강한 뇌 관리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우호걸 교수가 강사로 나서 뇌졸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이세경 기자

위메프, EDM 축제 ‘월드페 티켓’ 단독 판매

메프가 국내 대표 EDM 페스티벌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2020 (이하 월드페)’ 티켓을 14일 낮 12시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월드페’는 1주차(5월 30~31일), 2주차(6월 6~7일) 두 기간에 걸쳐 서울랜드에서 개최된다. 티켓 가격은 블라인드 티켓 ▲2주 모두 놀자!(4일권) 19만 8000원 ▲1주 선택해서 놀자!(2일권) 9만 9000원이다.

위메프에서 단독 판매하는 블라인드 티켓은 출연 라인업 공개 이전에 한정수량으로 최저가에 판매되는 티켓이다.

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월드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EDM 페스티벌이다. 현재까지 국내 실력파 DJ는 물론 오데자, 어보브 앤 비온드, 저스티스, 아비치 등 EDM씬의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 라인업을 선보이며 EDM 매니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다. /신원성 기자

올해부터 수혈·우울증 외래도 적정성 평가

심평원 올 35개 의료항목 평가

올해부터 수혈과 외래 우울증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적정성 평가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학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수혈, 우울증 평가를 새롭게 추가해 총 35개 의료항목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혈은 적합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혈액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국내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이 78%로 미국 8%, 영국 8%, 호주 14%에 비해 크게 높은 점을 고려해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 적정성을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울증 외래 진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올해 시작된다. 2016년 기준 우울증 환자의 95%는 외래 진료를 받았으나 그간 정신건강 진료 평가는 입원 진료에 국한돼 있었다.

영상검사와 내시경검사 등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비평가도 도입한다. /이세경 기자